

『조선보건사』를 통해 살펴본 북한의 전통의학 인식 - 근대 이전 의학사를 중심으로 -

¹釜山大學校 韓醫學專門大學院 人文社會醫學教室 助教授 · ²嘉川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助教授
辛相元¹ · 金鍾鉉^{2*}

North Korea's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in *Joseonbogeonsa*[*History of Public Health in Joseon Korea*] - Focusing on Premodern Medical History -

Shin Sang-won¹ · Kim Jong-hyun^{2*}

¹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t. of Humanities & Social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significance of the 『Joseonbogeonsa』 by examining North Korea's perspective in its documentation of the history of medicine, and to further understand North Korea's per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Medicine.

Methods : The focus of examination was on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description as shown in the first chapter of the 『Joseonbogeonsa』. Its unique features were made clear through comparison with historical texts of medicine of South Korea such as the 『History of Medicine in Korea』, and the 『History of Korean Medicine』. In order to grasp the current of historical research in North Korea, various Traditional Medicine related dictionaries and academic journals of North Korea along with the 『Joseontongsa』 were examined.

Results & Conclusions : The historical views of the 『Joseonbogeonsa』 could be categorized as nation-focused, materialistic, and nationalistic. These are core elements that make up North Korea's self-reliance ideology, which influenced the interpretation of medical facts. While the text is valuable in that it introduced new historical material along with its interpretation, and argued for a more independent development of Traditional Medicine, its limitation of interpreting historical material from a conclusive, pre-determined standpoint cannot be overlooked. The North Korean 'Goryeo Medicine' is defined by its historical nature rather than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its significance is determined by its clinical efficacy rather than theoretical value.

Key words : Joseonbogeonsa, Hong Sunwon, Goryeo Medicine, East Medicine, North Korea

* Corresponding Author : Kim Jong-hy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 : +82-31-750-8724, E-mail : ultracoke82@gmail.com

Received(February 2, 2021), Revised(February 8, 2021), Accepted(February 8, 2021)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2018년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여러 차례 부침을 겪으면서 한동안 활발했던 교류협력의 움직임도 다소간의 피로감 속에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류협력이 시도되었던 여러 분야 중 전통의학¹⁾은 민족의 동질성이 비교적 온전히 보존된 분야 중 하나이며, 인도주의적 측면의 접근도 가능한 만큼 교류협력의 장벽이 낮고 기대가 높은 분야이다. 이에 그간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시도되었음에도 외부의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는데,²⁾ 전통의학계 내에서 형성된 장기적 계획보다는 정치적 화해 분위기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교류협력에 대한 강력한 동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이 오히려 장기적 관점의 계획을 수립하고 토대를 마련할 적기가 될 수 있다.

장기적 계획의 수립에는 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ies)와 위기(Threats)를 고려하여 편익과 효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교류협력의 본질적 목적은 조화로운 공존에 있으며, 이는 상대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진실된 이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스스로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 속에 담겨있기 마련이다. 즉, 전통의학 분야의 교류협력의 장기적 계획 수립은 전통의학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그들이 전통의학의 역사를 서술한 방식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전통의학사 관련 북한 자료는 종류와 양이 모두 제한적이다. 그마저도 부문별 실용 서적에 일부 언급되거나 학술잡지에 실린 단편적 서술이 대부분이며, 윤창렬이 조사한 바에 따르

면 1945년~1992년 사이 북한에서 출간된 전통의학 관련 서목 중 의학사 서적으로 추정되는 제목을 발견할 수 없다.³⁾ 이러한 가운데 홍순원의 『조선보건의사』는 거의 유일하게 전통의학의 역사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담고 있다. 『조선보건의사』의 저술 시기는 북한이 ‘동의학’의 진흥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79년에 매우 가까워 이때를 기점으로 정립된 전통의학에 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재출간된 바 있어 접근성 또한 높은 자료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국내의 의학사 연구자들은 『조선보건의사』를 주목해왔다. 『조선보건의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당시까지 남한 연구자들에게서 거의 공백으로 남아 있었던 개항 이후로부터 일제강점기, 해방 후, 한국전쟁까지의 보건 의료사를 정리한 점에 가치를 두었다.⁴⁾⁵⁾⁶⁾ 특히 김두종의 『한국의학사』, 三木榮의 『朝鮮醫學史及疾病史』 등 기존 의학통사류와 비교하여 유물사관, 민족주의의 관점 하에서 의학사를 일관되게 설명한 점을 주목하였고,⁷⁾⁸⁾ 과학기술사의 좁은 테두리가 아닌 보건문제나 제도적 변천 과정에 대해 광범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서술한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⁹⁾ 반면 유물론적 관점에서 역사를 도식적으로 해석한 것,¹⁰⁾¹¹⁾ 주체사상에 기인하여 외세의 영향을 자주성

3) 윤창렬. 북한의 고려의학 연구. 대전. 주민출판사. 2004. pp.178~231. 「5.북한에서 간행한 동의학서적」

4) 신순식. 한국한의학연구소. 한국한의학사재정립(상).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 1995. p.11.

5) 허정. 서평: 홍순원, 「조선보건의사」(청년세대, 1990). 한국과 학사학회지. 13(1). 1991. p.75.

6) 박형우. 홍순원의 『조선보건의사』. 연세의사학. 1(1). 1997. p.12.

7) 신동원. 한국 전근대 의학사 연구 동향. 의사학. 19(1). 2010.

8) 박형우. 홍순원의 『조선보건의사』. 연세의사학. 1(1). 1997. p.11.

9) 허정. 서평: 홍순원, 「조선보건의사」(청년세대, 1990). 한국과 학사학회지. 13(1). 1991. p.74.

10) 신동원. 한국 전근대 의학사 연구 동향. 의사학. 19(1). 2010.

11) 박지영. 서평: 한국의학사 연구의 최근 경향과 전망(여인석, 이현숙, 김성수, 신규환, 박윤형, 박윤재, 『한국의학사』). 의사학. 21(2). 2012. p.346.

1)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인식하는 ‘한의학’의 개념과 북한에서 인식하는 ‘동의학’, 혹은 ‘고려의학’의 개념이 그 의미 범위에서부터 인식의 방식까지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이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전통의학’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2) 김동수.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방안.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연구 2020-1호. 2020. p.3.

의 격하로 간주하고 충분히 다루지 않은 것¹²⁾ 등은 한계로 지적하였으며, 자료의 선택과 서술이 치우쳐 있고 1차 사료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¹³⁾¹⁴⁾ 『조선보건의사』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평가는 대체로 서술 경향에 대한 것이며, 관심사는 개항기 이후의 역사에 집중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근대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전통의학의 역사에 대한 전문적 검토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제1편·제5장」까지의 근대 이전 의학사를 대상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북한의 관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역사 서술의 관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통의학사로서의 『조선보건의사』의 의의를 평가하고 전통의학에 대한 북한의 관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선 결과들을 토대로 남북 전통의학 교류 방향을 모색해보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보건의사』 판본(1981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출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남한에서 재출간된 판본도 참고하였다. 남한에서 발간된 의학사서인 『한국의학사』와 『한의학통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한국 한의학사 재정립』과 시대별 서술을 비교하여 이 책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였고, 북한 내 역사연구의 흐름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선통사』와 북한의 전통의학 관련 사전 및 학술잡지를 검토하였다.

II. 本論

1. 서지학적 특징

1) 서지사항

『조선보건의사』는 홍순원이 저술하고 과학·백과사

전출판사에서 펴냈으며 함북일보사가 인쇄를 맡아 총 708p, 22×14cm의 형태로 1981년 출간되었다. 현재 『조선보건의사』 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 한국학중앙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한림대학교 도서관 등이 소장하고 있다. 1989년 도서출판 청년세대가 국내에 재출간하였는데, 이는 당시 정부의 북한 보건의료자료 공개화 방침으로 일부 서적들이 일반에 공개된 결과이다.¹⁵⁾ 이 판본은 원본과 비교해 북한 서적 특유의 “위대한~ 교시하였다.”와 같은 문장을 삭제하고 맞춤법과 문장부호를 수정한 것 외에 큰 차이는 없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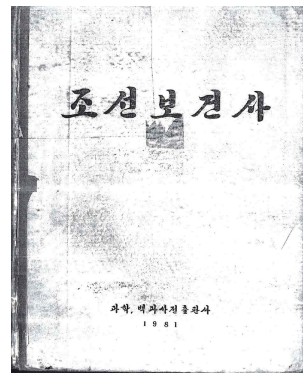


그림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보건의사』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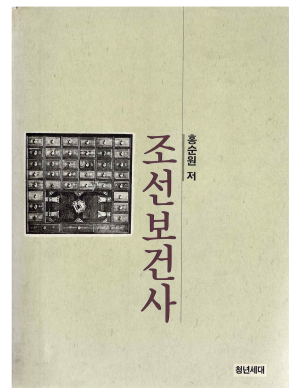


그림2. 청년세대 『조선보건의사』 표지

12) 김진혁, 문미라, 사회주의 진영의 북한 의료지원과 교류 (1945-1958): ‘소련배우기’와 ‘주체적’ 발전의 틈새에서. 의사학. 28(1). 2019.

13) 신순식, 한국한의학연구소, 한국한의학사재정립(상),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 1995. p.32.

14) 황상익, 김수연, 해방 전후부터 정부 수립까지(1945년-1948년)의 북한 보건의료. 의사학. 16(1). 2007. p.37.

15)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서울, 도서출판 청년세대, 1989. 「책을 내면서」

16)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서울, 도서출판 청년세대, 1989. 「일러두기」

서적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자 홍순원에 관한 정보는 출판사항에 표기된 ‘준박사’(석사)와 ‘부교수’가 전부이며, 선행연구들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저자는 평양의학대학 교수로 재직할 바 있다.¹⁷⁾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의 소장 도서 중에는 홍순원이 저자이거나 저자 명단에 포함된 서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건경영학:대학용』,¹⁸⁾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의 보건령도사』,¹⁹⁾ 『조선사회과학술집482 혁명력사학편: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건령도사』²⁰⁾ 이에 해당된다. 저서의 목록들과 『조선보건사』에 서술된 전통의학 내용의 전문성으로 미루어볼 때 홍순원은 전통의학이 아닌 보건학 분야의 전문가이며, 주로 해방 후 사회주의체제의 보건사를 연구한 인물로 추측된다.

이 책을 출판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는 사회, 자연, 의학, 과학 분야의 이론 및 기술에 관한 도서, 잡지, 백과사전 등을 발행하는 종합출판기관이다. 1953년 ‘과학원출판부’로 발족된 후 여러 차례 분리, 통합의 과정을 거쳐 1976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되었으며, 1987년부터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로 바뀌어 산하에 사회과학출판사, 과학기술출판사, 의학출판사, 백과사전출판사 등의 부문출판사를 두었고, 2001년 과학백과사전출판사로 개칭했다.²¹⁾

북한의 고려의학 서적들은 거의 대부분 편집부 명의로 머리말을 두어 최고지도자의 교시에서 비롯된 출판 목적, 내용, 구성, 특징 등을 기술하며, 북한의 전통의학 전문 사전인 『동의학사전』과 『고려의학대사전』은 북한에서 간행된 주요 서적의 정보를 수록하였다. 그러나 본 서적은 특이하게 머리말이 존재하지 않으며, 언급한 사전들에도 수록되지 않아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2) 서술 형식

『조선보건사』의 서술 형식에 보이는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북한 서적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내용을 한글로만 기술하였다. 한자어 및 외래어의 표기도 한글로 이루어졌고 특별한 경우에만 한자를 병기하였으며,²²⁾ 한문으로 되어 있는 사료들도 모두 번역하여 한글만으로 표기하였다. 둘째, 『김일성저작선집』, 『김일성저작집』, 『사회주의문학예술론』 등에 기록된 최고지도자(김일성)의 ‘교시’ 내용을 인용하고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역사적 해석의 준거로 제시하였다. 셋째, 사료의 출처를 밝히는 경우 문단의 아래에 ‘*’로 표기하고 작은 글씨로 참고문헌을 표기하였다. 그러나 모든 출처를 기재한 것은 아니며, 일부의 경우는 참고문헌이 아닌 주석 내용을 ‘*’ 아래에 서술하기도 하여, 표기 원칙은 뚜렷하지 않다. 넷째, 그림과 사진 자료를 전혀 수록하지 않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서 출간된 『조선통사』가 다양한 사진과 그림 자료를 제공한 것과 차이가 있다.

2. 서술 방식의 특징

1) 목차 및 시대 구분

『조선보건사』는 크게 「제1편」과 「제2편」으로 구성되었다. 별도의 제목은 존재하지 않으나 「제1편」은 고대부터 일제강점기 중반까지의 보건의료사를 서술하였고, 「제2편」은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틀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두 편의 내용이 나뉘는 시점은 1920년대 전후인데, 현 체제의 보건 전통 수립이 항일무장투쟁시기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²³⁾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제1편」은 총 7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고대시기 보건」, 「제2

17) 황상익, 김수연. 해방 전후부터 정부 수립까지(1945년-1948년)의 북한 보건의료. 의과학. 16(1). 2007. p.37.

18) 홍순원. 보건경영학:대학용.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90.

19) 보건부 김일성동지보건사상연구실 집필, 홍순원 심사, 서창남 편집.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의 보건령도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20) 홍순원 심사, 김명순 편집. 조선사회과학술집482 혁명력사학편: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건령도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4.

21)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1).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p.301.

22) 한 예로 ‘질소(疾所)’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였는데, 인쇄에 사용된 정식 한자 글꼴이 아닌 수기한 글자를 삽입한 형태이다.(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47.)

23) 홍순원. 조선보건사. 서울. 도서출판 청년세대. 1989. 「책을 펴내면서」.

표1. 『조선보건의사』와 『한국의학사』, 『한의학통사』의 시대구분(편제) 비교

『조선보건사』 편제		사회경제제도	『한국의학사』 편제(24)		『한의학통사』 편제(25)
제1편	제1장 고대시기 보건	노예소유자국가	제1편 상세의학사	제1장 고대의학	제1장 상고시대의 의학
	제2장 삼국시기 보건	봉건국가		제2장 고조선의학	
	제3장 후기 신라시기 보건	봉건국가		제3장 삼국시대의학	제3장 통일신라시대의 의학
	제4장 고려시기 보건	봉건국가	제2편 중세의학사	중세의 의학 - 고려의학	
	제5장 리조시기 보건	봉건국가	제3편 근세의학사	근세의 의학 - 근세조선의학	제5장 조선 전기의 의학 제6장 조선 후기의 의학
	제6장 근대적인 보건제도의 형성, 자본주의열강의 의학 적침투 책동의 강화	봉건 국가 (자본 주의 성장기)	제4편 최근세의학사		제7장 개항기의 한의학
	제7장 경찰위생제도의 수립 과 범죄적인 식민지 보건정 책을 집행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	제국주의	제5편 최근수난기의 의학과 독립된 한국의학	제1장 수난기의 의학	제8장 일제강점기의 한의학
제2편	제1장 ~ 제9장	사회주의국가		제2장 독립된 한국의학	제9장 해방 이후 한의학사

장 삼국시기 보건, 「제3장 후기 신라시기 보건」, 「제4장 고려시기 보건」, 「제5장 리조시기 보건」, 「제6장 근대적인 보건제도의 형성, 자본주의철강의 의학적침투 책동의 강화」, 「제7장 경찰위생제도의 수립과 범죄적인 식민지보건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의 순이다. 이중 1장의 「고대시기」는 고조선과 삼한의 시기를 포괄하며, 6장과 7장은 각각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해당된다. 「제2편」은 총 9장으로 구성되었는데,²⁴⁾ 고대부터 구한말까지를 서술한 「제1편」에 비해 최근 50여년의 역사서술이 오히려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는 『조선보건의사』의 주된 편찬 목적이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형성과정 서술

에 있음을 보여주며, 그에 앞서 이전 시대의 역사를 조망함으로써 현 체제로 귀결되는 역사적 맥락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보건의사』는 왕조 기준의 일반적 시대구분법 외에도 ‘노예제사회’와 ‘봉건제사회’ 등의 역사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각 시기를 구분하고 해당 시기의 보건의료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삼았다. 고조선, 부여, 진국 등 고대 국가들을 ‘노예소유자국가’, 삼국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봉건국가’이며, 개화기는 봉건국가 속에서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시기로 보았다. 이 같은 시대구분은 인류의 사회발전이 원시공산제로부터 노예제, 봉건제를 거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 유물사관에 기초한 것이다. ‘노예제사회’는 잉여생산 및 사유재산의 발생으로 원시사회의 공동경제가 무너지고, 그 결과 착취와 피착취의 계급분열과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진 사회이다.²⁷⁾ 또한 계급 지배를 위한 권력기구로서 고대 국가가 탄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²⁸⁾ 이에 비해 ‘봉건제사회’는 생산력 발전과 피착취 인민의 투쟁에 의해 지배계급이 모든 노예에 대한 인신적 소유를

24)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66.

25) 김기욱 외. 한의학통사. 고양시. 대성의학사. 2006.

26) 「제1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주체적인 보건사상, 우리당의 빛나는 혁명적 보건전통의 창시」, 「제2장 보건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 민주주의보건제도의 수립」, 「제3장 민주보건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투쟁」, 「제4장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보건」, 「제5장 전쟁이 인민들의 건강에 남긴 후과의 청산, 인민보건사업의 가일층의 발전」, 「제6장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수립, 전인민적위생문화운동과 정성운동의 발단」, 「제7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실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공고발전」, 「제8장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투쟁」, 「제9장 의료봉사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문제의 해결」

27)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북한학술총서1)조선통사(상). 서울. 도서출판 오월. 1988. pp.38-39.

28)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북한학술총서1)조선통사(상). 서울. 도서출판 오월. 1988. pp.41-43.

포기하고 토지 소유권과 수확물 공납을 통해 지배하는 사회를 가리킨다.²⁹⁾ 이러한 역사 구분은 북한 역사학계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정립된 것으로³⁰⁾ 그 결과를 북한의 정통성 있는 역사서인 『조선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³¹⁾ 한국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이 의학사 기술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시대별 내용 구성

『조선보건의사』의 시대별 내용 구성은 크게 해당 시기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제시한 부분과 구체적인 보건사 서술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보건사의 기술은 대체로 해당 시기의 제도적, 사회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내용은 크게 의료제도, 질병관, 의료기술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분석해 볼 수 있다.

각 장의 첫머리에서는 공통적으로 해당 시대의 사회경제학적 맥락을 개괄하였으며, 이는 시대 상황이 보건의료제도의 성립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사회경제학적 맥락에 대한 설명은 사회주의 역사관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과거의 체제를 비판적 논조로 기술하였다.

구체적인 보건사 서술의 서두에는 시기별 의료제도를 독립적 항목으로 설정해 기술하였다. 각 시대의 의료기관, 관직 등 제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며 시기에 따라서는 중앙, 지방, 자선의료(구휼) 등의 측면으로 나누어 서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의사의 교육·양성 및 등용제도에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 상세히 기술하였는데, 의사의 사회적 지위 및 처우에 관해서도 무게를 두어 기술하였다(그림3).

전의사의 직제				
No	관 직 명	인원수	위 계	
1	판 사	1	종	3품
2	감	1	정	4#
3	소 감	2	종	5#
4	박 사	2	#	8#
5	승	2	#	8#
6	의 정	2	#	9#
7	조 교	1	#	9#
8	주금박사	1	#	9#
9	첨 의 사	1	위 계없다	
10	주 약	2	#	
11	주 금 사	2	#	
12	주 금 풍	2	#	

그림3. 고려시대 전의사의 직제 (『조선보건의사』 p.76)

질병관에 서술된 내용은 위생관념의 발달, 전염병 기록, 방역대책을 포괄한다. 의사와 사서의 질병 관련 기사를 고찰하여³²⁾ 해당 시기의 질병 인식의 수준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대체로 당대의 사상과 과학기술의 인식 수준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전염병에 대한 인식과 방역대책 관련 사료에 대해서는 시기 별로 따로 항목을 두어 상세히 기술하였는데, 전염병의 유행과 방역대책의 수립이 의학적 현상인 동시에 사회적 현상으로서 보건사의 중요한 서술 대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의료기술은 주로 침, 약 등 의료기술의 변화와 의학서적의 간행에 대해 서술했다. 특히 약의 서술 비중이 높으며 약재의 활용, 생산과 유통, 해의 교류, 처방의 정리, 향약의 발전 등을 포함한다. 약은 생산과 유통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치료에 사용되며, 이 과정은 제도적, 사회적 요소들과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의 주요 의학사 서적이라 할 수 있는 김두종의 『한국의학사』와 『조선보건의사』의 내용 구성을 비교해보면, 『한국의학사』는 시대별 서두에 외국으로부터의 의학 유입과 교류 양상을 상당한 비중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각 시대의 학술적 특성을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동향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말미에

2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북한학술총서1)조선통사(상), 서울, 도서출판 오월, 1988. p.81.

30) 『조선통사』는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집필한 역사서로서 1958년에 처음 출간되었으며, 1962년 개간 이후 1977년과 2010년대에도 반복적으로 출간되었다.

31) 전병우, 북한 古代史觀의 변화 -1960년 前後에 나타난 古代史 時期 구분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연구. 1호. pp.55-79.

32) 『신라법사방』,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급유방』,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표2. 『조선의학사』 인용표기(*' 표기) 서목

범위	『조선보건의사』의 인용표기 서목	
제1장 ~ 제5장 (근대 이전 의학사)	현대 의학사 저작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미끼사까에, 1955), 일본의학사(후지가와), 인삼사(이마무라, 1936)
	의서	황제소문/소문, 외대비요(왕도), 천금요방(손사막), 의심방, 신농본초경, 명의별록, 촉본초, 신수본초(소경), 본초강목(리시진),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 급유방(의학출판사, 1964)
	한국사 시기별 주요 사서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 태종실록, 세종실록, 문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광해군일기, 영종실록)
	기타 한국사 사료	해동역사(조선고서간행회, 1910), 충무공전집(국립출판사), 반계수록, 전객사일기
	중국 사서	산해경, 사기, 삼국지, 후한서
	사회주의국가 서적	사회주의문학예술론, 조선정치제도사(교육도서출판사, 1978), 중국의학대사전, 소련의학대백과사전, 조선의 함경도와 평안도(하바롭스크, 1898), 조선지(로씨야제정성, 과학원출판사)
	기타 사료	유양잡조, 일본서기

주요 의서 및 의인을 따로 조명하였다. 반면 『조선보건의사』는 사회경제학적 맥락의 제시와 이에 대한 가치평가를 명료하게 제시한 다음 이를 토대로 역사적 사실에 관한 기술을 이어나갔다. 의인, 의서, 이론 등 학술적 사실에 대한 조명은 소략하거나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편이며, 상대적으로 사회사적인 측면을 중심에 두었다.

3) 근거 사료의 구성

『조선보건의사』에서 출처를 직접 밝힌(*'로 표기)한 근거 사료는 「제1편」에 총 291건이며, 근대 이전 의학사를 서술한 「제5장」까지는 201건이다.³³⁾ 그 분포를 살펴보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각 시기별 주요 사서가 대다수(138건)를 차지한다. 그밖에 『사기』, 『후한서』, 『일본서기』 등의 외국 사서, 『소문』, 『의심방』, 『향약구급방』 등 의서, 『김일성저작집』, 『김일성저작선집』, 『사회주의문학예술론』 등 김일성의 교시를 담은 저작집, 『조선정치제도사』 등의 북한 사서가 있다. 후지가와 유우의 『일본의학사』, 三木榮의 『조선의학사 및 질병사』, 이마무라의 『인삼사』 등 현대의

의학사 저작과 『중국의학대사전』, 『소련의학대백과사전』, 『조선지』 등 사회주의국가들의 서적도 일부 포함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문헌들이 『조선보건의사』의 근거로 제시되었으나 「제1편·제5장」까지 실제 활용된 사료들의 대부분은 김두종의 『한국의학사』를 통해 확보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일성 관련 서적 및 사회주의 국가의 서적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사료는 김두종 『한국의학사』의 인용 사료에 포함되며, 주제별로 제시한 근거 사료의 목록이 대부분 일치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용 기사의 발췌 부분이 일치하거나,³⁴⁾ 한 글자와 함께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을 뿐 문장이 거의 흡사한 경우도 찾을 수 있다.³⁵⁾ 이처럼 사료와 서술의 많은 부분을 『한국의학사』에 의지하거나 참

34) 예를 들어 삼국시대의 전염병 유행 기사를 분석한 내용은,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38-40.) 나열 순서만 다를 뿐 『한국의학사』(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66. p.53.)의 목록과 동일하다.

35) 『한국의학사』에서 “원래 人智가 미개한 原始醫學時代에 있어서는 질병을 치료하매 巫祝의 세력이 왕성하게 되므로…… 그 의의가 자못 크다.”(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47-48.)의 단락과 『조선보건의사』의 “의학발전의 역사를 돌아보면 아직 인간이 미개하던 원시사회의 마법의학시대에는 의술과 무당의 주술적 의료행위가 섞여 있었다.……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66. p.40.)의 단락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3) '*'로 표기하지 않은 참고문헌도 많은 것으로 보이며 표기 원칙도 명확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확실히 표기된 서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참고문헌으로 명시한 곳은 찾아볼 수 없다.³⁶⁾ 일부 자료들의 인용한 서지정보가 『한국의학사』에 비해 자세하거나 정확한 점,³⁷⁾ 같은 내용의 기사를 다른 문헌을 통해 제시한 경우가 있는 점³⁸⁾ 등을 볼 때 일정한 검증 작업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을 제시하지 않은 자료의 일부는 三木榮의 저술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고려노사방』 관련 내용³⁹⁾과 송시열의 『삼방』에 대한 내용⁴⁰⁾은 『朝鮮醫學史及疾病史』나 『朝鮮醫書誌』를 참조한 것으로 추정된다.⁴¹⁾

그 외의 자료들은 북한 내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사학적 연구 결과 등 북한 사학계의 자체적인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유양잡조』의 고구려 침술 관련 기사,⁴²⁾ 『삼국유사』의 疾所 관련 기사⁴³⁾

등은 앞서 김두종과 三木榮의 저술에서 찾을 수 없는데, 해당 기사의 인용과 함께 독자적인 의미 해석을 한 점을 볼 때 자료를 자체적으로 발굴, 해석해 낸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의방유취』에 대한 기술,⁴⁴⁾ 안악3호 무덤벽화의 용두레 우물 그림과 평양 대성산 안학궁터 유지의 배수구와 하수구를 근거로 고구려에서 상하수도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본 내용⁴⁵⁾ 등은 『조선통사』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볼 때 『조선보건의사』의 근대 이전 의학사는 주로 『한국의학사』에서 자료를 취사하고, 추가적으로 三木榮의 저서와 북한 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수용함으로써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역사 서술의 관점

1) 국가 중심의 역사

‘의학’과 ‘보건’은 건강과 질병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의학’이 인체, 질병, 치료기술을 연구하는 전문적 분야를 가리키는 것에 비해 ‘보건’은 개인이나 사회가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일의 전반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건의사’의 성격 역시 ‘의학사’나 ‘의료사’와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선보건의사』의 경우 의학 이론이나 전후시대 이론의 발전 맥락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국의학사』가 책의 서두에 동물적 본능, 경험의 축적, 巫의 영향 등을 서술한 것과 달리⁴⁶⁾ 『조선보건의사』는 의학의 연원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에 비해 시기별 국가의 성격과 사회적 배경, 의료제도, 질병

36) 『한국의학사』를 통해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실제로는 三木榮의 저서를 인용했을 가능성도 의심하였으나, 三木榮의 저술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용문 표기(*)를 하여 출처를 밝혔고, 『한국의학사』에만 포함된 내용들이 수록된 경우들도 확인할 수 있다.

37) 일부 기사의 경우 서지정보를 보다 상세히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삼국사기』의 전염병 관련 기사를 취합한 부분을 보면 『한국의학사』가 기재하지 않은 기사의 권수를 추가로 밝혀두었다.(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38-40.) 기존 서지정보의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도 있다. 고국천왕 기사(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37.)는 『한국의학사』의 ‘12년 추7월’로 기록하였으나 『조선보건의사』의 ‘16년 10월’이 옳다.

38) ‘인삼찬’의 내용을 『한국의학사』에는 『본초경집주』로 표기하였으나(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66, p.42.) 『조선보건의사』에는 동일한 내용이 수록된 조선의 사서인 『해동역사』로 표기하였다.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40.)

39) 이 내용은 『외대비요』에 근거한 것인데, 같은 내용이 『朝鮮醫學史及疾病史』에 보인다.(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富士精版, 1963, p.7.)

40) 『한국의학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으나 三木榮의 『朝鮮醫書誌』(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56, p.115.)와 『朝鮮醫學史及疾病史』(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富士精版, 1963, p.209.)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었다.

41) 『朝鮮醫學史及疾病史』의 출판연도를 1955년으로 기재한 곳도 있고 1956년판이라고 한 곳도 있다. 『朝鮮醫學史及疾病史』는 1955년에 자기출판되었는데 1956년본은 어떤 책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42) 고구려의 의사가 위나라로 가서 정교한 침술을 선보였다는 기록이다.(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43.)

43) 원광이 왕을 ‘疾所’에 머물게 하면서 병을 치료했다는 내용인데, ‘疾所’를 환자를 수용하는 전문시설인 병원의 시초인 것으로 보고 강조하여 설명하였다.(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47.)

44) 『조선보건의사』(p.167)의 내용과 『조선통사』(p.167)의 내용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

45) 『조선보건의사』(p.42)의 내용과 『조선통사』(pp.100-102)의 내용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

46)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66, pp.10-18.

관, 전염병에 관한 사실들 및 평가를 주로 서술하였다.

보건사를 서술함에 있어 『조선보건의사』의 특징적 관점은 본문에 언급한 ‘보건’의 정의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 시책과 인민들의 투쟁의 총체인 보건의 역사는 국가의 발생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의 육체적 고통을 덜기 위한 소박한 의료행위는 국가의 발생 이전에 원시공동체사회에서 인류의 발생과 더불어 발생발전하지만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관한 국가의 법과 제반규정, 사회적 시책 등을 포괄하고 있는 보건은 국가의 시책으로서 국가발생 후에 비로소 생겨난다.” (고대시기 보건)⁴⁷⁾

위 내용을 요약하면 ‘보건’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시책이다. 즉 보건의 주체는 국가이며, 이 책의 역사가 국가의 보건정책을 위주로 서술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가 주도의 역사 서술은 해당 분야의 내적 맥락, 즉 시대별로 나타난 보건 분야의 문제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인과관계 및 그에 공헌한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가의 정책이라는 외적 요인을 통해 역사 발전을 해석함을 뜻한다. 따라서 『조선보건의사』는 국가의 의료나 교육에 관한 제도사 서술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가의 성격과 시대적 배경이 당시 의학의 특징을 해석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건의 역사는 국가의 발생 이후에 가능하므로, 보건에 관한 구체적 사건을 기술하기에 앞서 ‘(고)조선’의 명칭을 사용한 고대 문헌을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⁴⁸⁾ 반면 의학자 개인, 또는 의학 저작의 사상적 특징이나 학술적 업적은 다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의학자들이 속한 계급이나 연구 결과물의 국가 대내외적 위상 등 국가사회에 연관된 부분만을 기술하

였다.

이처럼 국가를 주체로 역사를 편찬한 까닭을 추측해보면, 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2편」의 역사, 즉 해방 후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형성의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이며, 그와 같은 관점을 「제1편」에도 일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후의 일관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노예제사회’와 ‘봉건제사회’에서 나타나는 보건의료의 한계를 부각시킴으로써 사회주의 보건체계를 정립한 국가의 역할과 성과를 강조하는 대비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유물사관

유물사관, 혹은 사적 유물론으로 불리는 사회주의 역사관은 역사의 진보를 봉건지배계층과 생산계급 사이의 대립과 투쟁이라는 도식으로 파악하는데, 보건의사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보건 발전(진보)의 원동력이 물질적 토대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외사적인 관점에서는 반동적인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 생산계급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며, 내사적 관점에서는 물질에 기초한 객관적 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립과 투쟁

『조선보건의사』는 모든 인간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의학의 발전 역시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계급주의적 관점을 견지하였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보건은 지배계급이 생산수단을 전유한 사회경제적 구조 속에서 부귀와 향락을 오래 누리하고자하는 욕망의 도구로 시작되었다고 보았으며, 이를 ‘반인민적보건’으로 규정하였다.⁴⁹⁾ 결국 보건의 역사란 피착취계급의 계급투쟁을 통해 ‘반인민적보건’의 상태로부터 벗어나 사회주의보건 제도로 귀결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인식의 틀은 고대부터 봉건사회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배계급이 보건사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들의 건강을 위한 욕망의 표현이자 지배계급의 이익에 대한 복무일 뿐이

47)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1.

48)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1.

49)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4.

었으며,⁵⁰⁾ 그 본질을 ‘반인민적보건제도’로 규정했다. 실제 대중들을 위한 사업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갈등을 무마하고 덕성을 선전하려는 지배계급의 기만적인 시도이거나, 인구를 늘리고 생활을 안정시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하는 전략적 착취 수단으로 해석하였다. 예컨대 조선의 임금들이 의학 발전에 대해 노력한 사실을 仁政이라는 구호를 선전하거나 국가의 부를 위한 것으로 평가절하 하였다.⁵¹⁾ 또한 시대마다 존재해 온 ‘자선의료기관’(구료기관)의 의의도 피지배계급에 대한 회유 수단으로 평가하였다.⁵²⁾ ‘자선’이라는 명칭에는 동서대비원, 활인서 같은 구료기관을 ‘기만적인 구호이자 교활한 착취형태’로 폄하하는 시각이 담겨 있다.⁵³⁾

반대로 유의미한 의학사적 발전은 피지배계급에 의해 일어났으며, 이들의 처지가 개선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창조성이 발현됨으로써 의학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주요 의서들의 저자가 모두 평민출신 민간 의사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공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하는⁵⁴⁾ 반면, ‘세종과 같은 봉건국왕’의 역할을 중시한 부르주아 역사가들의 견해를 극력 비판하였다.⁵⁵⁾ 마찬가지로 『향약구급방』 등의 향약방서들이

저술된 것은 인민들의 병 치료에 이바지해온 애국적인 의사들의 공이며,⁵⁶⁾ 약초재배의 발전 측면에서도 인민들의 약초재배 경험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다.⁵⁷⁾

한편 조선시대 의녀제도를 ‘여자의사양성사업’으로 번역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여성을 동등한 노동자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⁵⁸⁾

(2) 물질적 근거 중시

역사의 진보를 계급 사이의 대립과 투쟁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의학 발전을 평가하는 기준에도 적용되었으며, ‘진보적’ 성격의 유물론적 질병관과 ‘반동적’ 성격의 관념적, 미신적 질병관의 대립이라는 도식으로 치환되었다.⁵⁹⁾ 여기서 유물론적 질병관이란 관념에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자연, 즉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물질’에 기초한 객관적 근거를 통해 의학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⁶⁰⁾ 이러한 관점은 여러 차례 사용된 ‘과학’이라는 용어에 응축되어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이 보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고려시대에 금속활자로 대표되는 출판인쇄술, 고려자기, 천문학, 화학 등 전반적인 기술발전이 보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으며,⁶¹⁾ 조선시대의 비약적인 보건발전이 가능했던 주요 원인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꼽았다.⁶²⁾ 또한 유물론적 질병관은 계급주의적 관점과도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실천적인 임상 의료와 물질적 근거의 축적이 주로 피지배계급의 생

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의 빛나는 결과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50)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75.

51) 태종, 세종, 세조 등이 직접 의학책을 읽고 의사과거시험에 참관한 기록이나, 세조가 의약론을 저술한 것 역시 평가절하하였다.(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31.)

52) 조선시대 해민서를 ‘반인민적본질을 은폐하기위한 장식물’로 보았으며(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38.), 활인서는 ‘전염병자격리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였다.(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40.)

53)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41.

54) 『의종손익』의 발간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책의 발간에 적극 참여한 과정을 미담으로 각색하여 많은 분량을 할애해 저술한 예를 볼 수 있다.(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65.)

55)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76. “15~16세기에 의학기술이 발전한 것이 세종과 같은 <현명한> 봉건국왕의 역할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부르주아의학사학자들의 이론의 부당성을 입증하며 그것은 전적

56)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12.

57)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84.

58)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51.

59)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16.

60)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9.

61)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73.

62) 홍순원. 조선보건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29.

산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⁶³⁾ 피지배계급인 ‘근로인민대중’에 의하여 관념적이 아닌 물질적이고 경험적 접근이, 이론적이 아닌 임상적 접근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다.

의학의 성격에 대해서는 물질적, 객관적, 임상적 경향을 높이 평가하였고 반대로 관념적, 이론적 경향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예를 들어, 음양오행설의 관념적인 성격을 크게 비판하였는데, 고구려 『노사방』의 처방 설명 중에 기술된 각기병과心の 관련성은 관념적인 음양오행론이 아닌 임상적 관찰에 의한 의학 성과라 해석하였다.⁶⁴⁾ 또 향약의 발전과 『향약구급방』의 과학적인 질병관을 높이 평가하면서 당대의 운기학, 불교의학의 형이상학적 성격에 대해 비판하였다.⁶⁵⁾⁶⁶⁾ 단, 모든 이론적 경향을 비판한 것은 아니고 경험 단계에서 발전된 기초의학이론의 경우에는 의학의 수준이 제고되는 것으로 보고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신라에서 의사교육에 사용한 교재가 기초이론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⁶⁷⁾

동일한 맥락에서 미신, 종교, 사상의 영향은 철저히 배격하였다. 고대의 ‘영혼설’,⁶⁸⁾ 신라의 향가인 처용가⁶⁹⁾ 등의 사례에 나타나는 미신적 성향은 지배계급의 사상과 이익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중을 속이고 자주성을 희석시켜 통치를 용이하게 한다고 보

았다.⁷⁰⁾ 특히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성행한 불교를 매우 강하게 비판하였다. ‘4대부조설’을 중심으로 불교의학이론의 형이상학적, 신비적 성격을 비판하였고, 인민들의 치료경험에 의해 얻은 치료효과를 부처의 공로로 돌리는 기만적인 행태로 규정했다.⁷¹⁾ 불교가 의학 발전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피지배계급이 사회경제구조에서 느끼는 고통을 정신적으로 덜어주어 탐구정신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과학적 인식을 방해하는 점을 가장 엄중하게 보았으며⁷²⁾ 종교 행사를 열어 전염병 전파를 가속시키고 신비적 치료법에 의지하여 합리적인 방역대책을 꾀하는 점도 지목하였다.⁷³⁾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유교(성리학)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관점을 취하였으나⁷⁴⁾ 불교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사회적 효용을 가져다주었다고 기술하였는데, 상대적으로 현저한 조선시대의 보건의료 발전의 유인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⁵⁾

『조선보건의사』는 의학 진보의 판단 기준을 상당 부분 현대의 물질과학에 의지하고 있다. 현대 과학을 기준으로 의학적 사실을 검토하여 과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백제신집방』에서 황기를 사용해 응저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 황기가 ‘그람양성균’과 ‘적리균’에 대한 억제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임상약리학적 연구 결과를 제시했으며,⁷⁶⁾ 『향약구급방』에 기재된 병명이 현대의 병리적 개념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과학성을 인정하였고,⁷⁷⁾⁷⁸⁾ 납약 제조 과정에서 납입 전후 눈

63)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9, p.175.

64)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44-45.

65)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12.

66)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120-121. “‘5운륙기설’을 비롯한 당시 중국의학계를 지배한 형이상학적인 의학이론, 불교의학이론과는 관련이 없는 독자적인 성과라는데 있다.…… 그 어떤 관념론적이며 형이상학적인 의학이론이나 종교적인 신비설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향약구급방을 통해 보게 되는 질병관과 치료법은 우리나라 봉건시기 보건발전역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67)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56.

68)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8.

69)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58.

70)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8.

71)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67.

72)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69, p.116.

73)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70, p.124.

74)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30.

75)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30. “유교는 불교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낮을 돌리게 하였고 이는 리조초기에 일시 보건발전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되었다.”

76)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45.

녹은 물을 사용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에 부합하며 미신이 아님을 강조했다.⁷⁹⁾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서양의학 도입 주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3) 민족주의적 역사관

『조선보건의사』의 역사서술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민족주의이다. 자주성과 우수성의 강조는 주요한 역사적 사건의 평가에 빠짐없이 표현되었으며, 사대주의적 태도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통해 논점을 강화하였다. 형식적으로는 구체적 사실 설명의 전후에 민족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내세운 최고지도자의 교시를 삽입함으로써 민족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의학의 민족성과 우수성 강조는 개별 사실들의 성격을 평가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민족적인 것이 의학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일관된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선진적인 의학기술과 문화는 우리에게 맞는 우수한 전통지식과 새로운 합법칙성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므로, 의학의 민족주의적 서술은 ‘주체적 의과학기술’의 성립을 위한 핵심 근거로서 강조되었다.⁸⁰⁾

고대 보건에서는 민족적 관점은 의료기술과 보건 문화의 우수성을 통해 부각하였다. 그중 『소문·이법방의론』과 『산해경』을 인용해 돌침요법(砭石)이 고조선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추측하거나,⁸¹⁾ 『삼국유사』, 『제왕운기』, 『사기』, 『삼국지·위서』, 『명의별록』 등을 인용해 침, 약물, 위생 등의 의료수준을 평가한 부분은 내용과 사료 면에서 『한국의학사』나 『한

의학통사』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단군신화가 보건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및 관련 직군의 형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은⁸²⁾ 쑥과 마늘의 의미에만 주목한 남한의 의학사 서적에 비해 보건 발전의 수준을 후하게 평가한 것이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얼음을 써서 부패를 막은 것과 흰옷을 좋아한다는 『삼국지위서·부여전』의 기사를 위생적 요소로 평가한 것도 특징적이다.⁸³⁾ 보건 문화의 우수성은 고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부분에 주로 서술되었는데, 보건 발전의 가능성이 민족성에 본래부터 잠재되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부터는 구체적인 의학 사료에 근거해 보다 적극적으로 민족주의적 관점을 기술하였다. 대표적으로 『백제신집방』, 『고려노사방』, 『신라법사방』 등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난 처방들이 중국 의서에 수록될 만큼 우수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음양오행설의 틀에 매인 동방의학전통과 달리 임상실제를 중요시했다고 평가하였다.⁸⁴⁾ 의료제도의 자주성을 부각시킨 점도 눈에 띈다. 백제의 관직인 ‘채약사’에 대해 중국 사서에 보이지 않는 고유한 명칭이며, 의학사업과 약무사업을 분리했다는 독자적 면모를 강조했는데,⁸⁵⁾ 이는 남북조시대에 太醫丞과 藥藏丞을 구분해 醫와 藥의 業을 각각 분담케 한 제도에 의거했을 것이라 추정한 『한국의학사』의 설명과 배치된다.⁸⁶⁾ 그 외에도 『삼국유사』에 기록된 ‘疾所’를 전문적인 입원 시설로 보고 높게 평가한 것과 통일신라의 의료 관직, 의학교육과목 및 교재가 당이나 일본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점⁸⁷⁾ 등

77)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19.

78) 이외에도 『향약해민경험방』에서 살구씨의 침을 따고 쓸 것을 강조한 것(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103-104.), 『향약구급방』에서 시호, 향산(香山)로 학질을 치료하는 방법(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16.)에 대해 현대의 물질적 근거를 토대로 효과를 인정하였다.

79)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87.

80)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359.

81)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20-22.

82)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6.

83)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26-28.

84)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45-46.

85)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40.

86)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p.47-48.

87) 관직의 경우 당의 의사양성체계에 존재하는 안마박사와 주금박사가 통일신라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의학 교육의 경우 첫째 鍼醫와 藥醫를 구분하지 않고 양성했다는 점, 둘째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은 『난경』을 교재로 사용했다는 점, 셋째 당과 일본이 『유주도』, 『연축도』,

은 『조선보건의사』만의 특징적 서술이다.

『조선보건의사』는 고구려를 높게 평가한 김일성의 교시를 위시하여 고구려의 역사를 매우 긍정적으로 서술하였다.⁸⁸⁾⁸⁹⁾ 고구려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민족의 자주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통일신라 이후의 통치자들이 중국에 대해 보였던 사대적 태도를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외세에 대항한 잦은 전쟁이 의학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함으로써 민족 자주성과 의학사 발전 사이의 인과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고구려에는 국가 보건기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적 근거가 없으나, 무술을 숭상하고 체력단련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과 수, 당과의 대규모 전쟁을 치른 사실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국가적 보건기구의 존재했을 것이라 추측하였다.⁹⁰⁾ 고려시대에 벌어진 외세와의 전쟁⁹¹⁾과 근대의 항일 무장투쟁⁹²⁾에 대해서도 의학발전에 긍정적 의의가 있는 것으로 서술하였다.

고려시대의 서술에서 민족주의 역사관이 반영된 독특한 해석은 「제3절 《향약》의 발전」에서 두드러진다. 향약에 대해 ‘애국적인 약명’, ‘궁지높은 약명’이라 치켜세우면서, ‘중국약제 《당제》와 전통과 특성을 달리하는 고려약’이라 하여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의학사』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지는데 『한국의학사』는 중국의학의 수용이 부족했던 것을 향약 발전의 원인으로 보았으며,⁹³⁾ 그

의의는 고려의 풍습에 맞춘 중국의학의 응용에 있다고 평가했다.⁹⁴⁾ 반면 『조선보건의사』는 향약 연구의 배경을 약물지식의 심화발전,⁹⁵⁾ 고려의 대외적 권위 상승에 의한 교류 증대와 그에 따른 비교연구 활성화,⁹⁶⁾⁹⁷⁾ 의학사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반발⁹⁸⁾로 추측하였고, 전통의학과 보건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준 현상으로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하였다.⁹⁹⁾

조선시대에는 『향약집성방』, 『의방유취』,¹⁰⁰⁾ 『향약채취월령』, 『동의보감』 등의 국가적 의서 출판 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조

唐醫學, 高麗中期에 있어서의 宋醫學의 受容 정도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였다. 그런 까닭으로 高麗醫學은 그 후기에 있어 더욱 그 독자적 태세를 발휘하게 되어……”

94)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117. “그러나 종래의 의학적 지식을 발전시킬 만한 新知見을 가져온 것은 물론 아니고, 다만 高麗 자신의 풍습과 俗性에 적응될 만한 의학적 지식의 응용에 관한 독자적 영역을 전개한 데 지나지 않는다.”

95)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100-102.

96)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99-100.

97) 고려의 국제적 권위 상승에 대한 설명은 『조선통사』에 보다 명확히 설명되었다. “반거란전쟁에서 고려의 결정적 승리로 하여 그 위력이 과시되자 일찍부터 고려의 영향 밑에 있었던 서여진과 거란에 굴복하였던 많은 나라들이 자진하여 사신과 ‘선물’을 고려에 보내왔다. 특히 송나라는 고려의 빛나는 승리를 보고 고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이렇게 높아진 고려의 국제적 위신은 그뒤 고려가 이웃 여러나라들과 경제,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는 데 유리한 작용을 하였다.”(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북한학술총서1)조선통사(상). 서울. 도서출판 오일. 1988.(1977). p.214.)

98)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11.

99)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13. “12세기이후에 오면서 《향약》이란 명칭이 쓰이고 《향약》에 기초한 전통의학의 발전과정이 가일층 촉진된 것은 고려시기 약재의 생산과 교류의 확대과정에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로 봉건시기 보건발전에서 한 단계를 구획하는 의의있는 결과였다. 우리 나라 약 《향약》이 새롭게 인식되고 《향약학》이 발생발전한 것은 전통의학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다져졌다는 물질적증거였으며 보건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는 의의있는 현상이었다.”

100) 교열사업이 세심하고, 치밀하며, 조직적이라는 표현과 함께 세계최초의 의학대백과사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67.)

『적오신침경』을 참고교재로 사용했으나 신라는 『침경』 하나로 대체했다는 점, 넷째 신라의 의학교재는 주로 기초 이론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52-57.)

88)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30. “지난 시기 우리나라가 제일 강했던 때는 고구려때였습니다.”

89) 이러한 서술 경향은 북한의 주요 역사서인 『조선통사』와 일치한다. (정두희. 『조선통사』를 통해 본 북한의 역사 인식. 西江人文論叢. 第3輯. 1994. pp.199-201.)

90)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34.

91)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83.

92)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359.

93)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111. “그러나 元과의 의학적 지식의 섭취에 있어서는 新羅에 있어서는

선의서들이 중국과 일본에 보급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도 비중 있게 다루었으며,¹⁰¹⁾ 다양한 종류의 언해방 출간을 ‘사대주의에 대한 투쟁’이며 ‘인민의 의학적 재능이 발양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¹⁰²⁾. ‘납약의 제조’도 조선시대 의학의 특징적 현상의 하나로 설명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납약의 의미와¹⁰³⁾ 달리 ‘조정이 독점적으로 대량생산한 제제약’으로 보았으며, 해외 수출,¹⁰⁴⁾ 과학적 타당성, 국제적인 보전에 기여한 점¹⁰⁵⁾ 등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의사시험을 위한 필독의학도서		
1486 (성종 16년)	1749 (영조 24년)	1865 (고종 1년)
구 급 방*	동원10서	의학입문
태산집요**	의학정전	동원10서
왕진집*	소문	의학정전
본초	본초	소문
화제방	직지방	본초
부인대전	동인경	직지방
득효방	찬도맥	동인경
직지방	(속대전)	찬도맥
동인경		(대전회통)
찬도맥 (경국대전)		
(* 우리 나라 의학책)		

그림 4. 조선시대 의사시험을 위한 필독의학도서
(『조선보건의사』 p.159)

조선의학의 탁월한 성과와 국제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지만 동시에 지배층의 의학사대주의적 태도에 대해서는 비난을 숨기지 않았다. 예를 들어 향약에 기초한 동의학 흡수와 중국이론의 맹종을 16C 의학기술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그림4)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원십서》, 《의학정전》, 《의학입문》, 《명의잡저》, 《만병회춘》 등 중국의서가 대대적으로 출판보급됨에 따라 《동의보감》 비롯한 우리 나라의 귀중한 의서들이 점차 팔시되었다.”라고 하였는데¹⁰⁶⁾ 『동의보감』의 내용과 의사학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보여주며, 전통의학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노출한 예로 볼 수 있다.

민족주의적 관점은 현재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발간된 『고려의학대사전』에서 중국 관련 항목은 대부분 배제되었으며,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검색 결과 북한의 의사학 연구는 그들이 고려의학 3대 경전으로 추앙하는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이 주를 이루는 반면 중국의서는 연구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II. 考察

1. 전통의학사로서의 『조선보건의사』

『조선보건의사』는 책의 전반부에 걸쳐 전통의학의 역사를 서술했지만 스스로 ‘보건의사’를 표방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전문적인 전통의학 역사서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 내 유일의 의학 관련 역사서라는 점으로 볼 때 남북 전통의학 연구를 위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자료임이 분명하며, 향후의 효과적인 연구를 위해 『조선보건의사』가 가지는 전통의학사로서의 가치와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1) 의의

전통의학사 서적으로서 『조선보건의사』의 일차적 가치는 남한에 알려지지 않은 사료의 소개와 그에 관한 해석에 있다. 남한의 의학사서적에서 기존에 제시한적 없었던 사료를 발굴하여 제시하였는데, 북한에 위치한 고분벽화나 궁터의 고고학적 연구를 통해 고구려의 위생시설 수준을 언급한 것은 남한의

101)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171-173.

102)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70.

103) 보통 납약은 동지가 지나면 임금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던 환제나 산제를 가리키며 조선시대 궁중의 풍속 정도로 여겨진다.

104)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187-189.

105)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188-189.

106)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77.

학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삼국유사』의 ‘疾所’를 병원의 초기 형태로 해석한 것, 『유양잡조』의 고구려 침술에 대한 기사를 제시한 것은 김두종과 三木榮의 저작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기존 사서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새로운 의학사적 해석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한편 동일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 남한의 전통의 학사서들과 『조선보건의사』가 보여준 상반된 시각은 기존의 관점을 의심하고 재검토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의가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보건의사』가 취한 민족주의적 관점은 그러한 관점을 선택한 배경과는 별개로 ‘한국 의학의 독자적인 발전이 있었는가’하는 문제의식을 던진다.

이 질문에 대해 『조선보건의사』가 긍정적인 시각에서 의학사 서술을 전개한 반면, 김두종 『한국의학사』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¹⁰⁷⁾ 『한국의학사』는 내용상 외국과의 교류, 특히 중국과의 교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으며, 이를 시기별 서술의 머리에 둬으로써 의학사적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했다. 반면 『조선보건의사』는 외국의학의 수용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았고, 민족의 우수한 보건 문화와 생산계층의 창성성과 노력이 의학발전의 동력임을 누누이 역설하였다. 예를 들면 신라의 의학교육에서 기초 이론 문헌들이 중시된 것에 대해 『한국의학사』는 ‘추상적 의학교육의 결점’이거나 ‘고전 醫經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이라고 냉소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조선보건의사』는 이론적 교육은 의학교육 수준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높게 평가하였다. 마찬가지로 『한국의학사』가 고려시대 의학에 관한 내용 대부분을 외국과의 관련성 아래에 있는 것으로 서술한 반면,¹⁰⁸⁾ 『조선보건의사』는 고려의 의료제도

신라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형태이며 정권의 정당성을 알리는 등의 목적으로 초기부터 체계화된 모습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물론 『조선보건의사』가 독자적 의학 발전의 원동력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편찬된 것은 아니며, 그 원동력의 실체를 파악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도와 무관하게 두 책의 관점 충돌로 발생한 문제의식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표3. 『한국의학사』와 『조선보건의사』의 의학발전 원동력에 대한 관점 비교

주제	『한국의학사』	『조선보건의사』
의학발전 동력	외국(특히 중국)과의 교류	우수한 민족 문화, 생산계층의 창성성과 노력
이론 서적을 중시한 신라의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	추상적 의학교육의 결점, 고전 의경에 대한 무비판적 추종	의학교육 수준의 제고
고려시대 의료제도 형성에 대한 평가	중국의학의 영향에 의해 형성	신라에 비해 상당히 발전, 초기부터 체계화

2) 한계

분명한 관점을 견지하였다는 점은 동시에 명확한 한계를 갖는다. 첫 번째 한계는 사실의 연구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닌 밖으로부터 수용된 역사관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잉 해석이다. 예를 들어 계급주의적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의학 발전을 위한 전문 학자군 및 국가의 정책적 노력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 하였다. 의서의 편찬 및 언해 의서의 간행과 같은 조선의 정책적 노력은 평가절하하고 이를 근로대중의 공으로 돌리고자 하였는데, 언해

107) 여인석은 김두종이 “한국민에 의한 자주적인 의학 발달을 강조하는 주체적인 입장”에서 『한국의학사』를 서술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식민사관에 상대되는 의미이며, 기본적으로는 서양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서양의학적 내용과의 친연성이 전통의학 지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암묵적인 기준”이고 “전통의학은 서양의학의 도래를 예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상정되는 단선적인 발전론의 입장”을 취했다고 평하였다.(여인석, 一山 金斗鍾의 생애와 학문. 의사학. 7(1). 1998.)

108)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 p.117. “그리

하여 中期의 의학은 初期에 있어서의 新羅醫學을 전승해 온 데다가 宋의 醫學 및 印度醫學 또는 아라비아醫學 등의 지식을 결합하여 점차로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가하면서 中期의 後半期인 毅宗 및 高宗時에 이르러서는 高麗醫學이 자주적 기운을 자아내게 되었다. 그러나 종래의 의학적 지식을 발전시킬 만한 新知見을 가져 온 것은 물론 아니고, 다만 高麗 자신의 풍습과 俗性에 적응될 만한 의학적 지식의 응용에 관한 독자적 영역을 전개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의사의 간행이 대부분 국가 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권에 대한 대중의 투쟁으로 설명한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¹⁰⁹⁾ 또한 ‘유의’를 ‘유교 교리대로 가정적 의무로부터 의학에 뜻을 둔 자들’로서 그 의술이 ‘인민’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는데,¹¹⁰⁾ 그들의 학술적 역할에 대한 충분한 조명 없이 내세운 편협한 견해로 볼 수 있다.

민족주의의 관점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과잉 해석도 많은데, 한국 의학의 독자적 발전 동력을 강조한 것을 넘어 충분한 비교사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우월성을 주장하거나 외국의 영향을 축소한 경우가 보인다. 내용상 꼭 필요하거나 비판적 입장인 경우를 제외하면 중국 의서나 의학자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대표적이다.

정해진 관점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서로 다른 관점의 충돌이다. 정해진 관점의 틀을 하나의 사실에 하향식으로 적용하다보니 계급주의적인 평가와 민족주의적인 평가 사이에 상충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다.¹¹¹⁾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관점을 무리하게 강조해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봉건 지배 하에서 이루어진 긍정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긍정성을 강조하고,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부정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봉건제도에 탓을 돌리는 식이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의학사를 균형 있게 서술하기 어려우므로 『조선보건의사』를 전통의학사 연구에 활용할 경우에는 먼저 관점의 편중이라는 막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계는 국가 중심의 거시적 역사를 기술한 특성에 기인하여 내사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으

로, 전통의학 이론이나 의서, 의가들에 대한 조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황도연에 대한 설명은 평민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거나 『의종손익』의 간행 과정에 나타난 마을 인민들의 노력을 신화로 그린 것뿐이며, 허준이나 이제마의 사상적 특징이나 의학발전상의 가치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전통의학 자료의 수집 및 해석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드러낸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의학사의 중대한 내적 맥락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 의학사의 전모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 전통의학에 대한 몰이해와 부정확한 지식으로 인한 해석의 오류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 책의 저자인 홍순원이 전통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역사관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의학사를 해석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고려노사방』에 나오는 ‘脚氣衝心’과 같은 표현이나 『신라법사방』의 ‘積聚’와 같은 표현은¹¹²⁾ 동아시아 전통의학 문헌에 흔히 사용되는 증후이자 병명인데도 이를 한국 의학의 독자적인 특성으로 서술한 것은 전통의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낸다. 또한 조선시대의 중국의 서 출판과 보급이 『동의보감』 같은 우리 의서에 대한 관심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을 통해 『동의보감』의 학술적 성격을 비롯한 당대의 의학적 경향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함을 볼 수 있다. 『의방류취』, 『동의보감』의 성격을 ‘의학백과사전’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당 서적에 대한 직접적 연구가 부족 상황을 드러내며,¹¹³⁾ 『영추통천』에 기록된 체질론의 출전을

109)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66.

110)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160. “따라서 이들의 의술이란 자기 부모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가정적 범위안에서의 의술이었으며 일반인민에게는 거의 미치지 않았다.”

111) 이 문제는 사회주의적 역사 발전 과정을 보편적 법칙으로 보고 한국사에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민족적 주체성과 특수성을 강조할 것인지의 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서 북한 내부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된 바 있다. 북한 사관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12) ‘脚氣衝心’이 임상실체를 중요시한 학풍 덕에 각기와 心の 관계를 독자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45), ‘積聚’도 당시의 의학수준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병명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과잉 해석이기도 하며 저자가 전통의학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113) 국립중앙도서관 북한자료센터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볼 수 있는 북한 학계의 『동의보감』 관련 연구들에서도 고려의학 3대 고전으로 칭하며 칭송하고 있지만 논문들의 내용은 허준의 생애와 기타 저서, 동의보감의 편찬 계기와 과정, 동의보감의 대외 평가에만 집중되고 있다. 내용에 대한 설명도 목차와 구성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주체적인 측면을 강조할 뿐이다.(김동일. 허준과 그가 편찬한 고려의학 책. 천리마. 1992. 11호., 립영호. 허준과 『동의보감』. 천리마. 2002. 12호., 홍창신. [인물소개] 허준

『소문』 「령추통천72」와 같이 표기한 것 역시도 의학 문헌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 전통의학에 대한 북한의 인식

1) 『조선보건의사』에 나타난 전통의학의 인식

『조선보건의사』는 동의학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전국의학대학 내 동의학부 설립, 병원과 진료소들에 동의과와 동의사 배치 등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동의학을 발전시킬데 대하여’가 발표된 1979년과¹¹⁴⁾ 거의 같은 시기에 저술되었다. 따라서 전통의학에 대한 이 책의 서술은 북한이 전통의학이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고 진흥하기 시작하던 시기의 인식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들과 「제2편」에 부분적으로 서술된 동의학 관련 내용을 참고로 전통의학의 성격, 가치, 방향성 등에 관한 북한의 인식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조선보건의사』의 서술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전통의학의 성격은 독자성과 자주성이다. 고대로부터 민족의학의 본래적 우수성을 밝혔으며, 향약의 독자적 발전 과정을 비중 있게 서술함으로써 독자성을 부각하였다. 기초 사료들을 대부분 의지하면서도 『한국의학사』가 중요하게 다룬 중국 및 기타 국가와의 의학교류 내용을 대부분 제외한 것 역시 독자적 의학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자주적 특성은 고구려와 고려가 보여준 투쟁사를 의학발전과 연결지어 ‘자주적인 것이 곧 의학발전에 기여한다’는 등식을 성립시키고, 봉건지배계급의 의학사대주의가 의학발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역설하는 방식으로 강조되었다. 2005년 출간된 『고려의학대사전』은 ‘고려의학’은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병치료와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과정에 창조되고 발전하여온 민족의학.”¹¹⁵⁾으로 정의하였는데, 독자성과 자주성의 강조는 민족학을 규정하는 대표

적 속성이라 할 수 있으며, 전통의학에 대한 민족주의적 인식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의학의 가치에 관한 『조선보건의사』의 서술은 치료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이론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엇갈린다. 치료효과에 대한 높은 평가는 삼국시대 의서들에 기록된 처방들의 효과를 현대의학으로 설명한 부분이나 향약에 실효성을 기술한 예시에서 확인되며, 책의 후반에는 만성난치병 치료에 전통 의학을 적용한 성과를 기술하기도 하였다.¹¹⁶⁾ 전통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는 까닭에 관해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습성과 신체구조에 알맞게 연구발전’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였다.¹¹⁷⁾ 이와 반대로 전통의학의 이론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물질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의학이론을 관념적, 미신적으로 평가했으며, 과학적기초의 결핍을 전통의학의 ‘본질적 약점’으로 인식했다.¹¹⁸⁾ 특히 의학이 종교나 철학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하였다. 본문에서 서술한 역사서술의 특징들을 적용해보면 관념적 이론을 쫓은 것은 의학사대주의에 찌든 봉건지배층이며, 실천적 경험을 통해 의학지식을 획득하여 독자적 의학발전에 이바지한 주체는 근로인민들이다. 즉 ‘관념론-사대주의-착취계급’과 ‘유물론-자주-파착취계급’의 대립이라는 역사해석의 구도 속에서 전통의학은 진보적 속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며, 이는 사회주의라는 사상적 기초 위에 민족주의를 결합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주체

116)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624. “치핵, 치루, 림파선결핵, 골결핵 등의 치료에서 동의학적방법이 널리 리용되게 되었으며 일련의 동약제에 대한 분석연구사업이 진행되어 동약을 보다 과학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되었다.”

117)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358. “선조들이 쓰던 동의학은 그것이 비록 소박한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생활습성과 신체구조에 알맞게 연구발전시킨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귀중하고 훌륭한 것이다.”

118)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58. “질병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인체해부생리에 대한 과학적기초가 부족한 동의학의 본질적 약점에 기인된 어느정도 불가피한것이였으며 당시의 과학기술발전의 제한성과도 관계된것이였다.”

과 《동의보감》. 민족문화유산. 2007. 1호., 문도웅. [력사인물소개] 허준과 《동의보감》. 천리마. 2008. 1호.)

114) 김동수.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방안.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연구 2020-1호. 2020. p.32.

115)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61.

사상'의 정립과 궤를 같이 한다.¹¹⁹⁾

전통의학의 치료효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배경 이론을 부정한 것은 전통의학의 속성을 경험의학으로 규정했음을 의미하며,¹²⁰⁾ 본문 중 자주 사용된 '소박한 진보'라는 표현은 전통의학의 경험의학적 속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낸다. 경험적 지식만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북한의 전통의학은 필연적으로 이론적 증명을 요구 받으며, 이론적 증명은 곧 과학적, 현대의학적 증명이라는 방향성을 의미한다. 그 결과 『고려의학대사전』은 과학화를 고려의학의 사명으로 제시하였다.¹²¹⁾

한약(동약)에 대한 관심과 활용은 전통이론에 대한 불신과 경험적 의학지식의 실용적 가치에 대한 북한의 관점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동의학은 경험 의학으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실천 활동 속에서 검증한 성과들이 담겨 민족의 체질과 생활에 적합하므로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학기술'에 속한다.¹²²⁾ 또한 「제2편」에서는 한약재를 국가의 의료사업의 주요한 자원으로 인식하며 이를 활용한 제제의 사업화 의의를 비중 있게 설명하였다.¹²³⁾ 종합해볼 때 북한은 전통약리이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는 별개로 실용적 가치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9) 북한의 경우 전통의학을 1960년대에 '동의학'으로 명명한 뒤 1991년부터는 '고려의학'으로 개칭하였으며, 주체 사상이 정립되고 사회 전반으로 확장됨에 따라 기존에 선택적으로만 사용되던 전통의학은 1970년대 중반부터 주체의학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활용되기 시작되었다. (김동수.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방안. 한국한의학연구원. 정책연구 2020-1호. 2020. p.32.)

120)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358. "동의학은 경험의학으로서 제한성과 부족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안에는 오랜 기간에 거쳐 우리 인민들이 병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실천활동속에서 검증하고 축적한 귀중한 성과들이 많이 담겨있다."

121)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61. "고려의학의 사명은 고려의학을 발전시키고 과학화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훈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이다."

122)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358.

123)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693.

표4. 『조선보건의사』역사 서술에 나타나는 대립적 관점

역사 발전	계급주의	유물론	민족주의	자연 인식	의학
진보	지배계급 (봉건지배층)	관념적	사대적	미신적	이론 중심
반동	피지배계급 (생산층)	물질적	자주적	과학적	임상 중심

2) 남북한의 전통의학 인식 비교

전통의학에 대한 남북의 인식 비교해보면, 한의학과 고려의학(동의학)은 한약(고려약), 침구 등의 치료수단과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같은 원전을 공유하며, 민족의학의 성격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통분모를 갖는다. 그러나 앞서 확인한 바를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고려의학과 한의학은 작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한의학의 경우 『황제내경』, 『난경』, 『상한잡병론』 등을 학술적 연원으로 여기고 금원사대가의 의서를 비롯해 『의학한문』, 『경약전서』, 『온병조변』 등의 중국 의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고려의학은 독자성과 자주성을 강하게 주장하며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통의학과 연관성을 배제하였다. 학문적 근간을 고려의학 3대 경전으로 규정된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동의보감』에 두었고, 그 결과 『조선보건의사』를 비롯해 『고려의학대사전』과 북한의 학술잡지들에서도 중국의서에 관한 연구나 설명을 찾기 어렵다. 심지어는 『동의보감』 연구에서도 인용된 중국 의서의 이론적 연관성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¹²⁴⁾ 이러한 점들로 볼 때 고려의학의 연구 대상은 고려 중기 이후의 한국 한의학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대상의 범위 뿐 아니라 사유방식에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조선보건의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은 유물론적 관점에 배치되거나 중국에서 유

124) 본론에 언급한 논문 외에도 북한의 김창복은 금원사대가의 학설은 이론을 위한 이론이었지만 허준이 공헌한 논쟁이 아닌 그들의 본질적인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완비되고 체계화된 의서를 편찬했다고 설명하였으며, (김창복. 16세기 후반기-17세기초 의학자 허준과 《동의보감》. 역사과학. 1986. 4호.) 그 외의 논문들도 대체로 비슷한 접근 방식을 보였다.

래했다고 생각되는 이론을 전통의학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기에 따르면 동양학문의 공통적 사유체계인 氣와, 氣를 의학에 적용하는 방법인 장상학설, 경락학설 등은 중국에서 전래한 아직 증명되지 않은 관념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한의학이 우리만의 특성을 강조하면서도 기본적인 원리를 동아시아 전통의학과 공유하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한의학은 물질 이외의 정신적 차원에서의 요인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으나 고려의학의 경우 정신적 요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생각되며 인문학 분야와 융합된 연구는 기대하기 어렵다.

전통적 이론을 인정하지 않지만 고려의학은 현상으로 구현되는 치료법들에 대해 경험적 측면을 인정하고 치료기술로써 활용한다. 예를 들어 경락과 경혈의 이론은 신뢰하지 않지만 특정 혈위에 자침할 때 나타나는 효과는 치료기술로 활용하며, 당장은 경락을 따라 자침하더라도 중국에는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할 대상에 속한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의 침구학 서적들이 90년대 이후로 ‘신경간배혈법’을 주요 배혈 원리 중 하나로 제시하고 2012년 간행된 『아픔과 침의 작용』에서 침에 의한 진통효과를 신경생리학을 통해 설명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¹²⁵⁾ 전통의학의 경험적 효과를 인정하되 그 원리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은 고려의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의학 역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라는 외부의 요구와 근거중심의 데이터 축적을 통해 세계적 표준에 맞는 의학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내부의 주장이 힘을 얻는 추세이다. 이유는 다르지만 남북의 전통의학은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경험지식으로 여겨져 이론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의학이 내외로부터 주문받는 연구의 방향과 고려의학이 사상적으로 강요받는 연구의 방향이 결과적으로는 같은 곳을 향하는 양상이다.

남북 전통의학의 정체성을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구분해 비교해보면,¹²⁶⁾ 한의학과 고려의학

은 치료도구, 치료기술, 바탕이 되는 텍스트와 같은 유형적 요소는 비교적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재된 세계관, 사유방식, 문화와 같은 무형적 요소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며, 무형적 요소의 차이가 남북의 전통의학의 이질성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을 알 수 있다.

3. 연구 및 교류 방향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의 전통의학 사이에는 동질성과 이질성이 공존하는데, 이질적 측면에 대한 이해 부족은 향후 교류·협력의 성과를 저해할 뿐 아니라 오해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직접적인 소통이 서로의 차이를 확인하고 좁혀나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제한된 환경에서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문헌자료를 통해 상대의 관점을 확인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조선보건의사』는 전통의학 분야의 전문 서적으로 볼 수 없으며, 출간된 지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따라서 전통의학을 구성하는 개별적 요소에 관한 관점을 확인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80년대 이후의 변화와 그를 통해 도출된 현재의 관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전문 의학사 서적의 존재가 알려진 바 없으므로 차선택으로 침구학, 본초학 등 분과별 서적에 서술된 역사적 관점과 이론 및 실체에 대한 서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 의학대학 고려의학부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고려의학』, 『주체의학(조선의학)』, 『력사과학』 등 북한의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전통의학에 대한 관점 변화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자료로써 연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남북 학자들 간의 직접 교류가 가능한 상황을 맞는다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자료에 기반한 공동연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로부터 도출한 공통의 관점은 의학 교류 전반의 밑바탕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이론과 치료기술의 교류 가능성을 검토해보

125) 김종현, 김송이. 북한의 침구학 서적에 대한 개괄적 연구.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37(4). 2020. p.241.

126) 전통의학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서는 白裕相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白裕相. 韓醫學 정체성 논의에 대한

연구 -原典學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5). 2010. pp.127-128.)

면, 이론보다는 실용적 치료기술 분야의 교류를 기대할 만하다. 『조선보건의사』의 관점으로 판단할 때 전통이론에 대한 북한의 관심도나 이해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침구, 부항, 경혈부위를 활용한 전기자극요법에 관한 서적이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출간되고 있으며¹²⁷⁾ 다양한 현대 침 치료법이 『고려의학대사전』에 등재된 것을 볼 때 실용적 가치가 높은 치료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고려의학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으리라 추측된다.

기술적 측면 뿐 아니라 의료시스템에 관한 부분도 연구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동서의학의 결합된 형태의 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남한의 정책 연구에 참고할 만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는 통일 이후 의료제도의 방향성을 고민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IV. 結論

본 연구는 전통의학에 관한 북한의 관점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보건의사』의 근대 이전 전통의학 서술을 검토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선보건의사』에 나타나는 역사관은 크게 국가 중심의 역사관, 유물사관, 민족주의 역사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루는 핵심요소들로서 의학적 사실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쳤다.
2. 국가 중심의 역사관은 해방 후 북한의 보건의료제도 형성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관점을 이전 역사의 기술에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며, 봉건제도의 한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시대별 국가의 성격을 위주로 의학의 성격을 규정하였으며, 의학자의 계급이나 국가의 대내외적 위상을 중요하게 설명하였다.

3. 유물사관을 통해 보건의 역사를 해석한 결과, 보건의 발전은 지배계급을 위한 반인민적보건제도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 노력의 대립으로 인식되었으며, 시기별 의학의 성격은 지배계급의 반동적인 관념적, 미신적 질병관과 피지배계급의 진보적인 유물론적 질병관의 대립으로 인식되었다.

4. 민족주의 역사관은 전통의학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강조하고, 외국의 영향을 받은 성과를 사대주의라 비판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여기에는 개별 사실들에 대한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뿐 아니라, ‘민족적이기 때문에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일관된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

5. 전통의학 역사서로서 『조선보건의사』는 기존에 없던 사료의 발굴,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점, ‘한국 의학의 독자적인 발전이 있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던진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이미 확정된 관점을 통해 사료를 해석함으로써 나타나는 과잉해석과 의학적 사실의 누락, 전통의학에 대한 학술적 이해 부족 등의 명확한 한계를 갖는다.

6. 북한의 전통의학은 학술적 특징보다는 역사성을 통해 규정될 수 있으며, 이론의 가치보다는 임상적 효용을 중심으로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7. 남북의 전통의학은 치료도구, 치료기술, 바탕이 되는 텍스트와 같은 유형적 요소는 비교적 일치하나 내재된 세계관, 사유방식, 문화와 같은 무형적 요소는 상당한 이질성을 가지며, 무형적 요소의 차이가 전통의학의 연구 범주와 방향성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상대의 관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남북 교류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초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북한의 전통 의학을 이해하는 데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향후 한의학계 내외에서 교류협력을 준비하는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길 희망한다.

127) 김종현, 김송이. 북한의 침구학 서적에 대한 개괄적 연구.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37(4). 2020. pp.241-242.

Reference

1. 김기욱 외. 한의학통사. 고양시. 대성의학사. 2006.
2. 김동수. 고려의학 현황과 남북 전통의학 교류·협력방안. 대한한의학연구원. 정책연구 2020-1호. 2020.
3. 김동일. 허준과 그가 편찬한 고려의학 책. 천리마. 1992. 11호.
4.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66.
5. 김종현, 김송이. 북한의 침구학 서적에 대한 개괄적 연구.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37(4). 2020.
6. 김진혁, 문미라. 사회주의 진영의 북한 의료지원과 교류(1945-1958): ‘소련배우기’와 ‘주체적’ 발전의 틈새에서. 의사학. 28(1). 2019.
6. 김창복. 16세기 후반기-17세기초 의학자 허준과 《동의보감》. 역사과학. 1986. 4호.
7. 림영호. 허준과 《동의보감》. 천리마. 2002. 12호.
8. 문도웅. [력사인물소개] 허준과 《동의보감》. 천리마. 2008. 1호.
9.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56.
10.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富士精版. 1963.
11. 박지영. 서평: 한국의학사 연구의 최근 경향과 전망(여인석, 이현숙, 김성수, 신규환, 박윤형, 박윤재, 『한국의학사』). 의사학. 21(2). 2012.
12. 박형우. 홍순원의 『조선보건의사』. 연세의사학. 1(1). 1997.
13. 白裕相. 韓醫學 정책성 논의에 대한 연구 - 原典學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5). 2010.
14. 보건부 김일성동지보건사상연구실 집필, 홍순원 심사, 서창남 편집. (위대한 수령)김일성동지의 보건령도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15.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북한학술총서1)조선통사(상)(하). 서울. 도서출판 오월. 1988.
16. 신동원. 한국 전근대 의학사 연구 동향. 의사학. 19(1). 2010.
17. 신동원. 한국 전근대 의학사 연구 동향. 의사학. 19(1). 2010.
18. 신순식. 한국한의학연구소. 한국한의학사재정립(상). 서울. 한국한의학연구소. 1995.
19. 여인석. 一山 金斗鍾의 생애와 학문. 의사학. 7(1). 1998.
20. 윤창렬. 북한의 고려의학 연구. 대전. 주민출판사. 2004.
21. 전병우. 북한 古代史觀의 변화 -1960년 前後에 나타난 古代史 時期 구분을 중심으로-. 평화통일연구. 1호.
22. 평화문제연구소. 조선향토대백과(1).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3. 허정. 서평: 홍순원, 『조선보건의사』(청년세대, 1990). 한국과학사학회지. 13(1). 1991.
24. 홍순원 심사, 김명순 편집. 조선사회과학학술집482 혁명력사학편: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건령도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4.
25. 홍순원. 보건경영학:대학용. 평양. 고등교육도서출판사. 1990.
26.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서울. 도서출판 청년세대. 1989.
27. 홍순원. 조선보건의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8. 홍창신. [인물소개] 허준과 《동의보감》. 민족문화유산. 2007. 1호.
29. 황상익, 김수연. 해방 전후부터 정부 수립까지(1945년-1948년)의 북한 보건의료. 의사학. 16(1). 2007.